



1, 2 소금산 그랜드 밸리 야간 개장 3 소금산 그랜드 밸리

“원주에서 색다른 겨울 여행 즐겨요” 소금산 그랜드밸리 축제 개최...비대면 행사로 챗봇 사회적경제 역사 탐방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즐기는 ‘윈터 페스타’

강원도 원주시는 소금산 그랜드 밸리로 재탄생한 간현관광지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이색 볼거리인 ‘소금산 그랜드 밸리 윈터 페스타’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소금산 그랜드 밸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비롯해 트리와 산타, 루돌프 조형물 등 다양한 소품을 설치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포토존에는 방문객이 직접 소원지를 적어 메달 수 있는 소원 나무를 설치했다. 또 포토존 SNS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꾸집한 경품도 제공했다.

야간에는 기존 경관 조명에 크리스마스 조명까지 더해 환상적인 빛의 축제가 펼쳐졌다.

간현 야간 관광 프로그램인 나오라쇼는 휴장 중에도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무료 진행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춰 영상을 투사하는 이벤트다.

원창목 시장은 “지난해 가을 큰 호응을 받은 ‘헬러윈 나오라쇼’에

이어 겨울 축제인 ‘윈터 페스타’까지 소금산 그랜드 밸리는 세계절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2018년 개장한 소금산 출렁다리에서 시작해 테크 산책로, 소금 잔도, 스카이다워로 이어진다. 테크 산책로는 696m이며 소금산 절벽에 설치한 잔도는 363m, 스카이 타워는 상공 155m에 설치했다.

원주 사회적경제 역사·스토리 탐방 여행

한국관광공사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 비대면 사회적경제 탐방 프로그램인 ‘원주 사회적경제 여행’ 카카옷챗봇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1일 시작했다.

사회적경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꼭 언급되는 곳이 바로 ‘원주’이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과 지학순 주교로 대표되는 50여 년의 협동조합 운동 역사를 지닌 원주시는 시민 5명 중 1명이 조합원일 정도로 협동조합이 삶 속에 뿌리내린 곳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물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활성화돼 있으며, 이를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챗봇 투어는 원주의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10개 장소를 관광 자원화해 도보여행 코스로 구성하고, 안내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혼자서도 손쉽게 둘러볼 수 있는 셀프 투어 서비스다.

챗봇을 열면 사회적경제에 얽힌 역사와 스토리를 흥미롭게 짚어갈 수 있다.

카카옷톡을 열어 ‘원주 사회적경제 여행’을 검색해 이용하면 된다. ▼



3



임인년 원주로 힘찬 기운 받으러 떠나 보자